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도전 본격화

도,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홈페이지 공고... 정부 지정절차 본격 착수 · 연내 금융위 제출 박차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부산에 이어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청년이 모이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서류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km를 금융중심지로 설정했다.

구역은 기능에 따라 △중심업무지구(0.14km) △지원업무지구(1.27km) △배후주거지구(2.18km)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등 지역 특화 인프라를 핀테크 산업과 접목한 차별화된 금융모델을 제시했다. 서울·부산과 함께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축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도는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발판으로 금융도시의 토대를 다져왔다. 그간 글로벌 금융기관 16개사를 유치했으며, 이전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금융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8월에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원이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지

구로 지정됐다. 신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금융혁신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한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을 비롯해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제공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향후 도의회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

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가 공인하는 전략적 금융거점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 금융기관 이전 및 연관 산업 육성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으로 금융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재편되는 지금이야말로 전북 금융산업이 도약할 절호의 기회인 만큼,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발계획안에 대한 도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 달 20일 오후 6시까지 도청 금융사회적경제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주장학숙 오픈하우스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관장 송기택)은 지난달 31일 저녁, '세대를 잇고, 전북청년을 품다'를 주제로 2025 전주장학숙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학부모·입학생·졸업생·총동기회 임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숙식과 공용시설을 둘러보는 견학을 비롯해 학부모 간담회, 총동기회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과 멘토링을 겸한 BBQ파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전주장학숙이 세대를 잇고 청년을 품는 열린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라며, 전북도에서도 청년 인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기택 관장은 "이번 오픈하우스는 학부모와 선배, 입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총동기회,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장학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동기회 유진호 회장은 "선배들이 걸은 길 위에서 후배들이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이후에도 후배사랑 장학금과 멘토링을 통해 장학숙의 세대잇기 문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직접 와서 보니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이 정말 쾌적하고 믿음이 간다"며 "장학숙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고맙다"는 소감을 말했다.



무주에 53m 고가사다리차 배치

무주군 최초의 고층건축물 대응 특수장비로, 최대 17층 높이(약 53m)까지 사다리를 전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층 아파트나 대형건물 화재 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한층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능해졌다. 이 장비는 첨단 디지털 제어시스템을 적용해 사다리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며, 바스켓(탑승대)에는 2명까지 동시에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원격 방수포, 고성능 조명등, 영상전송장치, 음성통신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야간이나 고층부 화재 현장에서도 상황 파악과 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무주 지역은 산악지형이 많고, 최근 관광시설과 숙박시설의 고층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화재 대응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53m 사다리차 배치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조치로 평가된다.

/이만호 기자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8회 전북 고향만남의 날 행사 및 제19회 이북도민 영·호남 친선교류 대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등 참석자들이 '고향의 봄' 합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호남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상생을 노래하다

고향만남의 날, 영·호남 친선교류대회 전북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이북5도전북특별자치도사무소는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제8회 통일염원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전북 고향만남의 날' 및 '제19회 영호남 친선교류대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북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의 정과 통일 염원을 나누며, 남북 화해와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전남, 경남 등

6개 시·도의 이북도민회가 함께 참여하는 영호남 교류대회가 전북에서 열리며,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황해도 실향민 2세이자 전북 이북5도연합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 지사의 배우자 목영숙 여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식전공연으로는 코리아 평화탈북

예술단과 전북도립국악원의 판소리 공연이 펼쳐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이북도민 사회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기여한 49명에게 유공도민 기광장 표창과 함경북도 명예도민증 수여되었으며, 약 8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서로의 고향 추억을 나누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청 내에 '이북5도 전북특별자치도사무소'를 운영하며 도내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원 상담, 정착 지원, 교류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제21회 임업인 한마음대회' 군산서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군산시 새만금 비응공원에서 도내 임업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제21회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33개 기관·단체에서 1,500여 명의 임업인과 관계자

가 참석해 임업 발전을 위한 결속과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인호 산림청장, 신영대·이원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

해 임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림과 함께하는 새로운 전북'의 비전을 공유했다. 올해 대회는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산림과 함께 하나로'를 주제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 1면에 이어... 민주 신임 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윤준병 후보는 '당원 주권 정당', '도민정당', '책임·윤리 정당', '현장 중심·민생 실천 정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한 당무 혁신, 정당 인재 육성과 열린 공천,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윤리 기준 확립, 현장과 민생 중심의 정책 실천을 약속했다. 신영대 후보는 '강력한 개혁 도당'을 표방하며 내란 잔재 척결과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 기소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성공과 정태래 당 대표의 사법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컷 공천제' 도입, 온오프라인 활동 플랫폼 구축, 도당 평당원 최고위원회, 당원 아카데미 신설 등 당원 중심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수락 연설에서 윤 의원은 "치열한 경선을 통해 당선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북 도민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심과 함께 호흡하는 도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한 당무 혁신을 이루겠다"며 "정당 인재 육성과 열린 공천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도민정당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윤리 기준을 토대로 한 책임 정당, 윤리 정당을 만들고, 현장과 민생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 정당, 민생 실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이끌고, 2026 지방선거 승리와 함께 전북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당원들과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며 "전북 대도약의 강한 엔진이 되어 당원이 주인 되는 도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이원택 도당위원장이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위해 당규에 따라 추석 전 사퇴해서 치러진 이번 선거로 당선된 윤 도당위원장은 전임 이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되며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미래기획단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미래기획단 위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도, '미래기획단 워크숍' 개최

민선8기 공약추진상황 공유·첨단전략산업 육성방안 논의

김관영 지사, '전북의 변화와 도약, 함께 만들어가겠다'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정의 비전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미래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미래기획단 위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도정 핵심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워크숍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육성방안 발표 △분과별(5개) 정책토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5개 분과는 △도민경제부흥 △농생

명산업수도 △문화·체육·관광 △새만금·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분야로 운영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정운영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미래기획단 5개 분과별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실질적 정책 발굴 및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약이행 추진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도정 전반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레이첨단소재, PPS 2호기 증설

5000톤 규모로 총 1만3800톤 규모 확보...새만금첨단소재 중심지 부상

새만금의 첫 외투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주)가 연간 5,000톤 규모의 PPS(폴리페닐렌설파이드) 2호기 생산라인 증설을 완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새만금산단 2공구 내 도레이첨단소재(주) 공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신영대 국회의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닛카쿠 아키히로 일본 도레이그룹 회장, 큐노 모토히사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수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PS는 내열성, 내화학성, 내마모성이 뛰어나 자동차 엔진 부품과 전장부품, 전기전자 제품 부품, 산업기계의 고열 주변 부품 등 다양한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2호기 준공은 단순한 공장 완공이 아니라, 도레이첨단소재가 세계 산업 변화의 중심에서 미래소재 시장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레이첨단소재의 성장은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투자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인허가 간소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소재·이차전지·수소 등 미래 산업이 집약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레이첨단소재는 새만금 최초의 외투기업으로서 지난 10여 년간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 동반 성장 해왔다"라며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새만금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일본 도레이그룹의 한국법인으로 1999년 설립됐으며, 고기능 필름, 수처리필터, 회로소재 등 고부가가치 첨단소재를 생산하며, 구미·군산·안성 등 전국 9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이만호 기자

도, 11월 반려견 미등록 집중 단속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10월 운영했던 동물등록 사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군

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기본 관리의무 이행 여부이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매년 2회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